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6월 13일(화) 15시 30분: 사무국 주간회의
- 6월 17일(토) 16시 30분: 56차 문화강좌

■ 연구원 소식

56차 문화강좌 안내(6월 17일)

5월 13일 열린 55차 문화강좌에 이어 6월 17일(토) 56차 문화강좌가 열립니다. 이번 문화강좌는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와 민선 6~7기 전주시장 등을 역임한 김승수 전북대 특임교수를 초대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주시장 재임 당시 전주시에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짓기 시작해 전주시가 대한민국에서 도서관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된 배경과 의미를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제: "탁월한 공공장소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 우리는 도서관을 짓지 않습니다 -

일시: 2023. 06. 17. 16시 30분

장소: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대상: 시민과 회원 누구나(장소 관계상 서른 분 내외 가능)

■ 역사속의 오늘

부끄럽지 않은 패배 - 1954. 06. 17 (한국 축구대표 첫 월드컵 출전)

한국 축구는 세계 5대 축구리그에서 많은 한국선수들이 활약하고 월드컵 본선 10회 연속 진출 기록(세계 6위)하고 있는 꽤 영향력 있는 대표팀을 보유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반세기전 축구의 변방 가운데 하나였던 한국이 지금의 위치까지 오게 된 계기를 1954년 스위스 월드컵으로 꼽곤 한다. 한국전쟁의 포화가 멈춘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던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을 앞두고 아시아 지역에 배정된 출전권은 단 한 장이었다. 애초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참가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중국이 기권하고 한국과 일본의 맞대결로 좁혀졌다. 해방 이후 최초로 치러지는 한일전이였다.

당시 일본과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승만 정부는 일본팀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다. 예선전은 어쩔 수 없이 일본에서 두경기를 모두 치러야만 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출국 전, 이승만 대통령에게 "일본에게 이기지 못할 경우 선수단 모두가 현해탄(대한해협)에 몸을 던지겠다."라고 하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강력한 정신력 덕분이었을까 결국 1차전 5대1 승리, 2차전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월드컵 출전권을 따냈다.

문제는 본선이 벌어지는 스위스까지 가는 길이였다. 스위스로 가는 길은 매우 험난했다. 당시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기에 정부의 적당한 지원은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본선에 진출한 16개국 가운데 유일한 아시아 국가소속이었던 한국 대표팀은 스위스로 가는 비행기 표를 제때 구하지 못하면서 수일간 발이 묶여 있다가, 도쿄-방콕-콜카타-로마-취리히를 거치는 일주일여의 대장정 끝에 경기 전날인 6월 16일 오후 10시에야 간신히 도착할 수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월드컵에 참가한 한국 대표팀.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세계 최강의 전력을 가진 헝가리였다. 당시 세계 최강의 전력이었던 헝가리 대표팀의 위상은 실로 어마어마했다. 대회 직전에 치러진 평가전에서 '축구 종주국' 잉글랜드를 7대1로 이겼고, 강호 서독조차도 8대3으로 꺾는 등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세계 최강 헝가리와 마주한 한국은 결국 '월드컵 본선 최다 점수차'라는 기록의 희생양이 되며 9대0으로 대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참패라 불려도 손색없는 이 점수는 한국 선수들의 투혼과 정신력이 만들어 낸 부끄럽지 않은 패배였다.

헝가리의 공격을 맨몸으로 막으며 전력을 다해 뒀던 한국 선수들은 후반전에 4명이 다리에 쥐가 나서 경기 출전이 불가해졌고 결국 7명만 그라운드에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없이 몰아치는 헝가리의 공격을 막아내며 엄청난 투혼을 발휘했다. (당시에는 교체선수 규정이 없어 부상으로 선수가 빠지게 되면 남은 선수들로 경기를 끝까지 치러야 했다.)

모두 100개가 넘는 헝가리의 슈팅을 막아낸 한국 대표팀에게 9대0은 오히려 기적과 같은 결과였다. 당시 골키퍼였던 홍덕영은 “헝가리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맞추면 골대가 흔들리며 울리는 소리가 엄청나서 내가 직접 가슴으로 맞으면 갈비뼈가 부러질 것 같았다”고 회상할 정도였다.

헝가리 대표팀 감독이었던 구스타보 세베슈는 “한국은 사자처럼 용감했고 쓰러져도 계속 일어나 뛰었다.”고 말했고 피파 줄리메 회장은 “지금은 한국같은 나라가 처참하게 무너졌다 하더라도 수십여 년 뒤에는 전혀 모를 일이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들의 헌사에 먼저 응답한 것은 한반도 북쪽의 나라였다. 12년 전 한국의 패배를 설욕 하듯 1966년 영국 월드컵에서 8강에 진출해 세계를 경악시켰고 그렇게 쌓여진 투혼이 모여 2002년 월드컵 4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1954년 6월 17일 스위스 취리히 하르트룸 경기장에서 열린 한국 축구 월드컵 본선 첫 경기는 비록 9대0의 대패였지만 부끄럽지 않은 패배로 기억되며 지금에 이르러 월드컵 본선 10회 연속 진출의 금자탑으로 이어지고 있다.



헝가리 전 당시 한국 대표팀(왼쪽), 망치로 축구화를 수리하고 있는 골키퍼 홍덕영